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11년 회원 역사 기행

인권역사기행 - '사람이 사람답게'

우암 송시열의 숨결과 메시아 사상이 스며있는 충북 괴산과 보은을 찾아

2011년 11월 5일(토)~6일(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690-141

홈페이지 <http://www.yangsimso.or.kr>

후원 : 518기념재단



| 2011 기행 일정 |

11/5(토)

- 09:00 ~ 양재동 서초구민회관 앞 집결
(지하철 3호선 양재역 7번출구 성남방면 300M 앞 우측)
- ~ 12:00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도착
- 12:00 ~ 13:00 점심식사 <명사십리> (043-832-4948)
- 13:00 ~ 14:20 송시열 신도비와 묘소
- 14:40 ~ 17:30 화양구곡(화양동서원, 만동묘터)
- 17:30 ~ 18:30 충북 보은 속리산으로 이동
- 18:30 ~ 19:00 숙소배정 및 짐정리
범주사입구 <속리산아람호텔> (043-543-3791~2)
- 19:00 ~ 20:00 저녁식사
- 20:00 ~ 21:00 하원호 교수님의 동학 관련 강의
- 21:00 ~ 뒷풀이

11/6(일)

- 08:00 ~ 09:00 기상 및 아침식사
- 09:30 ~ 11:30 속리산 범주사
- 12:00 ~ 13:00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13:20 ~ 14:20 점심식사 <신라식당> (043-544-2869)
- 14:30 ~ 15:30 삼년산성
- 15:30 ~ 16:00 기행정리 및 총평
- 16:00 ~ 서울로 출발

* 시간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원역사기행 발자취 |

1993년 동학농민전쟁 및 민중항쟁 : 전남 담양 가마골, 전북 전주 황토현, 내장산 등

1994년 백제의 고도 : 공주, 부여 일대

1995년 분단의 현장 : 철원, 임진강, 연천 일대

1996년 항일의병 유적지 : 제천, 충주 지역

1997년 무진장 깊은 산골 : 무안, 진안, 장수 지역

1998년 농민전쟁과 의병전쟁 : 예산, 홍천, 서산 지역

1999년 수난과 저항의 섬 : 강화도

2000년 단재 · 벽초 · 지용, 그리고 노근리를 찾아서 : 충북 괴산, 영동, 옥천 지역

2001년 21세기 길목에서 민족을 떠올리며 : 경기 남부 매향리, 수원 화성, 고달사터

2002년 민족통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경기 북부와 철원 인근

2003년 순천 · 담양지역 빨치산 전적지와 정읍지역 갑오농민전쟁 역사 유적지

2004년 공주 · 부여 일대 -백제와 우리 고대사

2005년 지리산 전적지와 구례, 곡성, 남원 지역의 유적 답사

2006년 우리 민족의 수난사-강화도를 찾아서

2007년 충남 예산 · 서산 · 홍성지역 역사문화유적

2008년 통일의 길목에 군사훈련장 확장이라뇨? : 민통선, 무건리 훈련장 지역을 찾아

2009년 동구릉-마석모란공원 내 열사묘역-다산 정약용 유적지-천주교성지 천진암-일본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남한산성

2010년 치열했던 투쟁의 현장을 찾아-충남지역 빨치산 전적지를 찾아

기행지의 이모저모

1. 괴산

1) 송시열의 신도비와 묘소



1-1-1. 송시열은(1607-1689)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대에 걸쳐 활동한 학자이며 정치가입니다. 송시열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구룡촌 외가에서 진사 송갑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는 영보(英甫)이며 호는 우암(尤庵), 화양동주(華陽洞主)입니다.

1-1-2. 학문적으로 조광조, 이이,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통을 이어 받은 송시열은 조선 후기의 지배적인 정치 철학을 정립한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에서 3,000번이 넘게 언급됩니다.

1-1-3.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은 1689년(숙종 15) 세자책봉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고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며, 국문(鞫問)을 받으러 서울로 압송되던 도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1-1-4. 당초 수원 무봉산에 있었던 우암 무덤은 1757년(영조 33) 청천면 청천리로 이장됩니다. 이로써 이곳은 화양동과 함께 노론들의 정신적 고향이 됩니다. 묘소 입구에는 정조 어필(御筆)로 쓴 '유명조선국좌의정우암송선생지묘(有明朝鮮國左議政尤庵宋先生之墓)' 신도비(神道碑)가 있는데, 이는 1779년(정조 3)에 세운 것입니다.

2) 화양구곡과 화양동서원 그리고 만동묘

1-2-1. 화양동계곡은 화양천 맑은 물을 끼고 산속으로 10리쯤 뻗어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라 일컬었습니다. 화양천은 흘러 달천으로 가고, 달천은 다시 남한강에 합류되어 한강까지, 서해까지 갑니다.

1-2-2. 화양동계곡이 유명한 것은 화양구곡으로 대표되는 자연경관 덕분만이 아니라, 송시열이 벼슬에서 물러난 후 이 골짜기에 들어앉아 글을 읽었으며, 그가 죽은 다음 그를 제향(祭享)하는 화양서원 그리고 만동묘가 있기 때문입니다.

1-2-3. 자신을 주자에 비유했던 송시열은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떠서 화양동계곡의 볼 만한 곳 아홉 군데에 이름을 붙이고 화양구곡(華陽九曲)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의 '비례부동(非禮不動)' 4자의 필적을 구하여 화양계곡의 암벽에 새겨놓고, 친히 '대명천지 숭정일월(大明天地崇禎日月)'이라 글자를 새겨 존명대의(尊明大義)의 근본도장으로 삼았습니다[5曲 첨성대(瞻星臺)].

1-2-4. 1689년(숙종 15) 왕세자 책봉을 둘러싼 논란 끝에 남인이 집권하게 됨에 따라[기사환국]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서울로 압송 도중 사약을 받고 죽은 송시열은 1694년(숙종 20) 노론이 다시 실권을 잡으면서[갑술환국] 복권됩니다. 이때부터 전국 44 곳에 그를 배향하는 서원이 세워지는데, 사액서원(賜額書院)만 해도 37곳에 이릅니다.

1-2-5. 그 가운데서도 송시열의 수제자인 권상하(權尙夏)·정호(鄭澥) 등 노론계 관료와 유생들이 1695년(숙종 21)에 세운 화양동서원이 가장 대표적인 서원으로 노론사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화양서원의 위세는 날로 더하여 국가로부터의 토

지와 노비 등 물질적 지원은 물론 노론관료나 유생의 기증에 의하여 서원 소속 토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화양서원은 점차 민폐를 끼치는 온상으로 변해가서, 제수전(祭需錢) 징수를 빙자하여 각 고을에 보내는 화양묵패(華陽墨牌)는 토색질하는데 쓰이다보니 협박장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1-2-6. 만동묘(萬東廟)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명나라 신종(神宗=만력황제)과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승정황제)을 제사지내기 위해, 1704년(숙종 30)에 화양동(華陽洞)에 지은 사당입니다. 해마다 만동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전국의 유생 수천 명이 모여들었고 일 년 내내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2-6. 만동묘가 노론(老論)의 소굴이 되어 상소와 비판을 일삼았고,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 양민을 토색하는 등 민폐가 심하자,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 헐어버리고 신주와 편액(扁額) 등은 서울 대보단(大報壇)의 경봉각(敬奉閣)으로 옮겼습니다. 뜰에 있는 만동묘정비(萬東廟庭碑)는 일본인들이 글자 획을 쪼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후 땅에 묻었던 것을 1983년 홍수 때 찾아내어 옛 자리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2. 보은

1) 법주사

2-1-1. '부처님의 법이 머문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주사(法住寺)는 553년(진흥왕 14)에 의신(義信)이 창건하였고 하였고, 그 뒤 776년(혜공왕 12)에 진표(眞表)가 중창한 미륵신앙의 중심 사찰입니다. 국보나 보물 말고도 법주사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것이 입구의 '오리숲' 길입니다. 참나무와 소나무, 전나무 등이 우거져 하늘을 가린 이 숲은 길이가 오리가 된다고 하여 오리 숲입니다.



2-1-2. 오리 숲을 빠져나가 수정교를 건너고 금강문 천왕문을 차례로 들어서면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 법주사 경내입니다. 속리산 자락에 들어 있는데도 절 자리가 평평하고 너른 터 안에는 팔상전(국보 55호), 쌍사자석등(국보 5호), 석연지(국보 64호)와 대웅보전(보물 915호), 사천왕석등(보물 15호), 원통보전(보물 916호), 마애여래의상(보물 216호) 등 국보와 보물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2) 동학 전적지 : 장내리(帳內里) 동학교도 집결지/동학농민군 북실전투지/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2-2-1. 1893년에 있었던 동학교도들의 보은집회는 본격적인 농민전쟁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해 3월 11일부터 4월 2일까지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일본과 서양의 침략을 물리치고 의로움을 떨친다)’의 기치아래, 보은장터인 장내리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구름과 안개가 메워지듯이’ 매일 각처에서 몰려와 무려 2만 3천여 명이 모여듭니다.



2-2-2. 보은 집회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교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교조신원운동에서 반외세·반침략의 기치를 내건 본격적인 농민혁명운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당시 보은 관아 삼문 밖에 내붙인 격문에는

“지금 왜양(倭洋)의 도적떼가 나라 한복판에 들어와 크게 어지럽힘이 극에 이르렀다.…우리 수만 명은 힘을 모아 죽기를 맹세하고 왜양(倭洋)을 타파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니…”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학은, 장내리 취회(聚會)을 계기로, 교조신원(敎祖伸冤)과 포교허용을 요구하던 종래의 종교운동 차원을 넘어, 일본과 서양의 침략세력을 배척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3) 삼년산성

2-3-1. 삼년산성은 신라시대의 산성이며 우리나라 산성을 대표할 만한 대단한 석축산성으로 성을 다 쌓는데 3년이 걸렸대 해서 삼년산성이라 불립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년산성은 신라 자비왕 13년(470)에 쌓았고 소지왕 8년(486)에 이찬 실죽을 장군으로 삼아 일선(지금의 구미시 선산읍 일대)의 장정 3,000명을 징발하여 개축하였다고 합니다.



2-3-2. 보은은 대전 청주 상주 영동으로 연결되는 요지로서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가 영토를 다투던 분쟁지역이었습니다. 신라는 상주 사벌성을 점령하고 보은으로 나와 백제의 남진에 대비하여 이 성을 쌓았습니다. 이 때는 백제가 한성에 도읍을 두고 있었는데, 이후 백제가 웅진(공주)으로, 사비(부여)로 천도한 후에도 삼년산성은 신라가 서쪽의 백제에 대비하고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면서 서북지방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였습니다. 즉 보은 지역의 확보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2-3-3. 진흥왕 15년(554)에 백제 성왕이 대가야군과 연합하여 관산성(지금의 옥천)으로 쳐들어오자 처음에 고전하던 신라군은 삼년산성에서 출병한 군사의 응원으로 성왕을 죽이고 백제 군사 3만 명을 전몰시켰습니다. 관산성 싸움의 승리로

| 기행지 이모저모 |

신라는 그전 해 나제동맹을 깨고 백제로부터 빼앗은 한강 하류지역 지배를 굳혀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도 삼년산성이 백제 공격의 최전방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봉준과 김옥균

하원호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교수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유명한 전봉준의 사진이 있다.

100년전의 흑백사진이라 선명하지는 못하지만 좌우로 호송하는 관리가 서있고 일종의 수레 같은 들 것에 앉아있는 그의 눈빛이 쏘는듯하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이 사진은 체포되어서 서울로 압송되는 '서울로 가는 전봉준'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고증으로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소에서 '감옥으로 가는 전봉준'을 일본인이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봉준은 김옥균과 함께 우리 근대사의 대표적 '혁명가'요, '풍운아'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 두 거목은 출신성분이나 사회적 위치가 달랐고 따라서 그들이 주도한 변혁의 과정도 달랐다. 당시의 별얼가문 안동김씨 출신으로 고위관직에 있던 김옥균은 소수의 개화파를 이끌고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권력을 일거에 장악하려한 반면, 몰락한 시골양반 출신으로 훈장질로 겨우 끼니를 때우던 전봉준은 수많은 농민의 지지를 얻어 농민의 군대를 조직하고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보다 대중적 지지를 받은 쪽은 전봉준인 셈인데 그래서 전해지는 설화나 민요에서 전봉준은 아직도 신화처럼 숨 쉬고

변혁과정도 전봉준쪽이 보다 드라마틱하다. 빛바랜 흑백사진 속에서 조그맣게 앉아있는 전봉준의 눈빛이 강렬하다는 인상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이 사진의 뒷면에 그림자처럼 깔려 있는 탓이다.

김옥균 없는 갑신정변은 꿈꾸기 어렵다. 지배계급내의 소수 관료들이 일으킨 쿠데타는 주동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개인적 능력이 직접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봉준 없는 농민전쟁은 어금니 두어 개가 빠진 듯 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씹어 볼 수는 있는 가정이다. 실제로 인물로만 친다면 같은 농민군 안에서도 전봉준 보다 김개남이 더 낫다는 설도 있다. 전봉준 없는 농민전쟁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데서 연유한다. 세계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도 여전히 지배계급은 수탈만 일삼고 피지배계급인 농민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저항은 필연적이었다. 이 점은 100년 뒤인 오늘의 상황에도 되새길만한 대목이다.

1894년의 농민전쟁은 봉건사회 말기의 극심한 국내적 모순을 극복하고, 나아가 제국주의 열강이 강요한 민족모순까지 한꺼번에 극복하려던 반봉건, 반외세의 저항운동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평가이다. 이는 일국사적 입장에서 봉건모순을 극복하려던 서구의 농민전쟁의 경우와도 다르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경우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대개 농민전쟁을 거친 후 부르주아지의 성장과 함께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는 농민전쟁 실패 이후 주체적 이행의 과정을 가지지 못하고 일본이라는 외세의 간섭과 통치 속에서 근대사회로 넘어 왔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서구의 농민전쟁과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해석은 서구의 그것과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넓게는 한국근대사 전반, 좁게는 근대변혁운동에 대한 전반적 시각을 가져야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 농민전쟁의 주체나, 지도이념, 지향, 그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명칭 문제에 대해서 학자 간 논란이 많은 것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가 아니라 한국근대사의 기본인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변혁운동사에 대한 이해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크게 보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개화운동을 근대변혁운동의 주류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이 관점은 일정하게 1960, 70년대의 '조국근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찾는 근대화론과 맞물려 있다. 개화운동은 실학과 일부 연결되고 개화파의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으로 이어진다. 이 방면의 연구는 개화운동

이 가지는 친외세적인 성격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운동의 과정을 미화한 경향이 짙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변혁운동사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 민중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민중사학이 등장한 것이다. 민중사학 연구자들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 해결에서의 개화세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근대사의 주역도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 개화파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담당하는 농민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관점의 연구는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차별성에 주목해 운동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고, 변혁을 위한 농민의 주체적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데다가 근대로의 이행기에서 부르주아 지향의 ‘위로부터’ 개혁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시각은 북한의 연구방식이다.

북한은 이 방면의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되어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도 이미 50년대 말에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북한의 역사가들은 개화파와 농민세력 모두에 일정하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즉,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농민전쟁을 추동하고 농민전쟁의 영향으로 갑오개혁이 시도되는 식의 앞의 운동이 뒤의 운동과 항상적으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민중사학의 역사이해의 분절적 경향과는 달리 역사적 사건을 일정한 맥락으로 잇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인식이지만,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주체의 계급적 성격과 그 지향의 차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제국주의세력이 침략해 오던 19세기 후반이후 한국근대의 변혁운동은 각 계층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개화운동을 들 수 있다. 개화파는 봉건지배계급내에서 상대적으로 혁신적인 세력이었다. 이들은 견문과 독서를 통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중국문명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전근대적 화이관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서구적인 근대사회로 이행시키고자 했다. 이에 대한 수구세력의 반발도 심해 급격히 권력을 장악하는 정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갑신정변의 실패이후 개화파는 몰락하고 정권을 주도할 수 없었지만, 남은 세력의 일부와 정부의 개화정책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관료들이 1894년 농민전쟁이후 일본의 후원 아래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들이 추진한 갑오개혁은 일본에 의해 간섭을 받은 것도 사실이나 그 이전부터 개화파들의 구상이 정치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뒤 독립협회단계에 오면 정권 내 정치세력으로서의 개화파는 의미를 잃게

되고 개화운동도 상당한 정도로 그 주체세력의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만민공동회운동에서는 도시 소시민까지도 가담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는 시기에 들어 나타난 애국계몽운동은 상당히 많은 지식인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의 범위가 넓어져갔다. 그리고 이 운동에 가담한 세력의 일부는 3.1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개화운동은 근대화운동이라는 점에서 1960, 1970년대의 '조국근대화운동'의 한 원형적 형태로 보아 상당히 연구가 진척되어왔다. 그러나 이 운동에는 역사적 한계가 있다. 친일파의 뿌리를 개화파에서 잡는 학자들도 있듯이 이 운동은 반외세라기보다 오히려 외세에 의존하는 형태의 운동이었다. 물론 김옥균을 비롯한 초기 개화파를 친외세적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갑신정변 당시의 외압은 일본보다는 청국이 강하게 가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일본의존적 성향은 오히려 청국세력을 축출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갑신정변이후 개화운동이 갑오개혁, 독립협회에서 보듯이 외세의존적 자세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갑오, 을미개혁이 일본의 간섭 속에 진행되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립협회 역시 반러시아적인 자세는 가졌지만 일본이나 다른 서양제국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애국계몽운동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논리인 사회진화론에 빠져 일제의 침략을 오히려 반기는 논리도 나왔다.

개화운동은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반봉건운동이었다. 그러나 반외세, 반봉건을 통해 근대국가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던 시기에 외세와 계속 친연성을 가짐으로써 반외세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부인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민족운동세력은 유림이었다.

조선을 소중화(小中華)라 생각하고 서양은 금수(禽獸), 금수와 친한 왜도 금수라는 전통적 화이관을 고수하는 이들은 대원군정권 아래 척양척왜운동의 선봉이었다. 그 뒤 개항에 대한 반대나 1880년대 개화운동에 대한 반발을 하여 위정척사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1896년 민비가 일본낭인들에게 처참히 살해당한 을미사변이후에는 의병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었다. 이들은 화이관을 부정하고 근대사회로 나아가려는 개화세력과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간섭을 통해 우리 사회를 자신들의 침략구도에 맞게 근대적 사회체제로 바꾸려는 일본에 대해서는 격렬히 반발했다.

대체로 유림세력은 향촌사회의 지배계급이었고, 근대화는 곧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뒤바꿀 위험한 행위였다. 소중화의식에서 중국이외의 나라, 일본이나 서구세력을 모두 금수로 보았던 척사파들은 이들의 침략과 그 결과로서의 근대화에 반발했던 것이다. 물론 일부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는 세력은 화이관을 바꾸어

서양세력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통적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병 운동에 참여하여 반외세운동을 전개했다. 물론 이 세력들이 반외세운동만 했던 것은 아니다. 1894년의 농민전쟁 당시에는 민보군을 조직해서 농민군을 직접 탄압하기도 했다. 향촌에서의 봉건적 질서를 흔드는 농민군의 활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운동은 반외세운동으로 나타나 외세의 침략과 강점의 시기에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반봉건 근대화가 요구되는 역사적 조건에서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었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이 운동이 일제의 강점 이후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근대변혁운동의 또 한 갈래는 농민항쟁이었다.

농민은 조선후기이래 지주-소작관계의 질곡, 부세체제의 문란 속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탄압받던 세력이었다. 농민혁명의 과정에서 나오는 구호는 대부분 관료와 이서배들의 가혹한 농민수탈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농민항쟁은 19세기 전시기를 거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에 묶여 있는 농민의 성격상 운동 자체가 지역적, 분산적으로 일어나고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사회에서의 농민항쟁은 봉건모순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반봉건적이었다.

1862년의 임술민란을 거치면서 인접군현과 관련 속에 봉기하는 등 농민항쟁도 분산성을 극복해 나갔다. 이필제의 난 단계에 오면 나름대로 조직적 움직임 속에 농민항쟁을 전개해 가기도 했다. 이필제의 난은 지도력을 가진 지식인이 농민을 조직화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전쟁에 이르는 많은 농민항쟁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흔히 농민전쟁이전 단계의 농민항쟁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난 것을 운동의 주도할 지식인이 출현하지 못한 데서 찾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농민전쟁의 전단계에 이르는 주요한 현상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봉건모순이 강요하는 질곡이 여전히 계속되고 이에 대한 농민의 저항이 가열화하는 가운데, 1876년의 개항은 한국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가져왔다. 개항 이후 맺어진 불평등조약으로 우리는 국내시장을 보호할 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직접 제국주의세력과 대면함으로써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갔다.

자본주의 열강들은 우리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면포 등의 자본제상품을 팔고 곡물과 금 등을 수출해 갔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자본주의발전을 위해 조선의 곡물을 유출함으로써 국내곡가를 비상하게 등귀시켰다. 더구나 봉건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오전과 같은 악화를 남발했고 그 결과 물가도 계속 등귀했다. 일본으로의 곡물수출이 증가하면서 농업은 쌀과 콩의 단작화로

진행되어갔다. 지주는 소작료수입의 확대를 꾀해 지주제를 강화해 가는 추세였다. 지주제의 강화에 따른 소작료의 고율화 등은 소작농민의 경제적 조건을 악화시켰다. 수취체제의 문란을 통한 관료나 이서배의 수탈 역시 개항이전과 마찬가지로 극심했다. 따라서 농민의 경제적 상태는 벼랑끝에 몰리게 되었다. 농민혁명 과정에서 제기되는 폐정개혁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농민의 항쟁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농민전쟁이전 단계 유림의 반외세운동이나 개화파의 반봉건 운동은 농민층의 현실적 어려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향촌사회의 유림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위정척사론은 반침략의 측면에서 농민층과 일치하였지만 그들의 반외세는 외국자본주의 세력의 침투를 막음으로써 향촌사회에서 봉건적 지배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농민전쟁 당시 이들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에 대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개화파의 정책도 반봉건노선에서는 같더라도 신분제 철폐 등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으며 게다가 지주적 입장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농민적 토지소유를 바라는 농민과 변혁의 지향을 달리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반외세 반봉건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고양되면서 농민층은 외국상인에 의한 자본제 상품의 침투와 봉건지배계급의 수탈로 몰락을 강요당 하던 소상공생산자 및 소상공들과 연대하여 직접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변혁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후 잔여세력의 일부는 뒤이어 일어난 봉건적 유생들의 의병운동에도 참가하였으나 주체가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농민전쟁의 역사적 지향은 대한제국시기의 각종 민란이나 영학당, 활빈당 등의 활동에 계속 이어져 반외세 반봉건의 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1905년 보호정치이후 일어나는 의병에는 그 이전의 척사론적 유생이 주도하는 형태와는 다른, 농민이 직접 주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각 지방에서 일어난 봉기는 대부분이 농민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농민은 반봉건운동의 주체적 세력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반외세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온 세력이었고, 1894년의 농민전쟁은 농민운동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전환점이었다. 나아가 한국근대사의 변혁과정에서 농민이나 소외된 층이 진정한 주체세력으로 설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했다.